

치 사

민족의 영산 한라산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작한 싱그러운 바람이 우리나라 전역에 포근한 봄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듯 뜻 깊은 절기에 만백 종호스님을 제23교구 관음사 조실로 모시게 되어 공경의 마음이 가득하며, 신임 주지로 허운스님이 취임하게 되어 축하와 격려를 전합니다.

제주는 다양한 신앙을 포용하면서도 깊은 불심을 유지해 왔기에 역사적으로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고장입니다. 근래에는 국민이 애호하는 대표적인 명소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명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관음사는 제주도민들의 정신적인 쉼터이자, 다양한 문화가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진 제주도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변화와 발전 속에서 제주불교는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특한 문화와 여러 종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제주도민의 불심을 북돋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제주시민의 생활상과 문화적 관심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종단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오신 종호스님을 조실로 모시는 일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중과 함께하는 정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정법의 길에 들게 했으며, 참 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덕화는 사부대중의 사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지로 취임하는 허운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중요한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미래 불교의 역할에 관심이 지대하고 실천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스님입니다. 특히 종단의 중차대한 불사인 신도시 포교를 위해 공심으로 헌신하여, 세종시 등 종단과 전통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현대인에게 정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공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진력을 다해온 경험은 제주불교의 위상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맞는 다양한 문화, 포교 활동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스님과 모든 사부대중이 조실스님의 오랜 수행력과 솔선수범을 잘 받들어 신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 제주불교의 발전과 활성화에 한껏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통문화의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희룡 도지사님과 정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을 묵묵히 극복해가며 제주불교의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전임 주지 성효스님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대중이 화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오늘의 공덕이 모든 이들을 행복과 자유의 길로 안내하기를 바라며, 제주도가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자유의 섬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3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